

고객 만족 종합포장전문업체로 도약

온라인 쇼핑몰 오픈, 아파트형공장 준공 등 시장 창출



김 일 영

신안포장산업(주) 대표이사

국민총생산(GNP)성장률과 비례해 성장하는 골판지 시장의 국내 시장 규모는 2조1천억원. 불황에 따른 내수침체와 원지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원단과 상자의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골판지 업계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 골판지 업계 대부분 업체의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5~10% 이상 감소됐던 2003년 350억원, 2004년 458억원의 매출을 기록함과 동시에, 포장전문 쇼핑몰인 패키지몰(www.packagingmall.com)을 오픈, 온라인 시장을 형성하는 등 새로운 시장 창출로 도약을 맞고 있는 신안포장산업(주)(대표이사 김일영)을 찾았다.

1974년 8월 서울 성동구 구의동에서 신안수출포장공업사로 설립된 신안포장산업(주)은 30여년간 꾸준한 기술개발, 설비확충으로 발전하며 골판지 원단, 골판지 상자, 컬러박스(color box) 및 쇼핑백을 개발, 생산하고



▲ 신안포장산업(주)의 생산제품



◀신안포장산업(주)
반월공단 전경

있다.

1990년 인천 남동공단으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형 골게이터를 폐기하고 최신형 골게이터 1호기를 가동하고 자동상자 가공라인 2개 라인을 신설, 골판지 원단과 골판지 상자 생산을 연 200억 원 매출규모로 확장하였으며 1992년 7월에는 신안포장산업(주)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컬러박스(color box)라인을 신규사업으로 확충, 현재 골판지 원단, 골판지 상자, 컬러박스(color box) 및 쇼핑백을 생산, 공급하는 종합포장전문업체로 성장했다.

2003년 12월에는 본사를

인천 남동공단에서 현재의 안산 반월공단으로 확장, 현재 안산 반월공단에 본사와 제1공장을 두고 인천 서구 당하동에 2공장을 보유하고 2004년 12월 인천 남동 테크노파크 아파트형 공장을 완공, 현재 분양 중에 있다.

또한 전라도 나주에 사업장을 확보, 향후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의 거점을 위해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중국 단둥산업단지에 대지 3,600평을 확보하고 있다.

생산캡과의 한계를 절감, 공장을 이전하면서 설비를 증

설해 온 신안포장산업(주)은 2003년 7월 일본에서 Isowa 1,800폭 골게이터와 자동인라인 상자 가공기 3대 및 팔레타이징 로봇 2대 등을 추가로 도입, 현재 골게이터 1~4호기와 인라인 자동상자라인 8개라인, 반자동 4라인, 봉합라인 3라인과 수동 가동라인 및 컬러박스(color box) 생산을 위한 미쓰비시 6도 옵셋 인쇄기, 합지기 2대, 도무송 5대 및 접착기 2대 등을 보유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신안포장산업(주)의 연간 생산능력은 골판지 3억㎡, 골판지 상자 1.5억㎡로

SHINAN

이는 연간 1,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한다.

김일 부사장은 “고객의 니즈를 직접 이해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시스템을 정립하고 교육강화를 통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제품의 품질혁신과 원가절감 뿐만 아니라 내부 부서간 고객대응시스템을 정착하고 수주, 생산, 검사 및 출하의 전공정을 Real

Time으로 전산 관리할 수 있는 다품종, 소로트 및 대형 로트, 컬러박스(color box) 등 종합 포장 공급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즉, 고객 요청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 (One Stop Service)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는 뜻.

실제로 신안포장산업(주)은 안산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신경영 정보 및 생산정보 시스템을 신규도입 했다. 기존의 낙후된 전산시스템을 전면 폐

기하고 첨단 사무자동화(OA)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여 골게이터 및 상자 가공기계들의 생산관리장치를 전부 교체한 것. 현재 신안포장산업(주)은 사무자동화(OA) 및 공장자동화(FA) 연동에 의한 종합 전산망 체계를 갖추고 수주에서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을 자동화 작업으로 전환하여 품질 및 납기 준수,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신안포장산업(주)은 1998년 Q마크 품질보증을 획득,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벤처기업 인증, 1999년 ISO 9002 인증, 2004년 ISO 9001 / 14001 시스템 인증,

2004년 정보우수기업 선정, 정보통신부 CIC 인증 마크 획득, 디지털지식경영대상 정보화향상부문 특별상 수상,



▲ 신안포장산업이 분양하고 있는 인천 남동 테크노파크 아파트형 공장



▲ 신안포장산업(주) 골게이터

2005년 산업자원부 물류표준 설비인증서 획득, 중소기업협동조합 표창장 수상, 정보화경영(IMS)체제 인증 등을 획득하면서 대외적으로 위치를 공고히 했다.

한편 신안포장산업(주)은 창립 이래 30여년간의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쇼핑몰업체, 일반기업체, 개인들이 주문 즉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포장전문 쇼핑몰인 패키징몰(www.packagingmall.com)을 오픈했다. 골판지 박스, 물론 플라스틱 박스, 스티로폼 박스, 폴리백, 에어캡, 테이프 등 포장과 관련된 모든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포장기술, 포장관련 정보를 비롯하여 포장 매니아들을 위한 클럽을 운영하는 등 포장포털로서의 입지를 굳힐 계획이다.

또한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舊 본사 자리에 최고의 시설을 갖춘 첨단 아파트형 공장인 남동테크노파크를 준공 완료, 1월부터 분양을 시작, 올해 150억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신안포장산업(주)은 기존의 제품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을 정착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일 부사장은 “중량물포장

에 사용되고 있는 나무상자의 대체소재로 떠오르고 있는 삼중양면골판지는 기존포장재에 비해 완충효과가 우수하며 재활용이 가능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접착 및 강도기술을 보완해 내년 초쯤 삼중양면골판지의 생산을 개시해 시장을 확보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불황에 따른 내수침체속에서도 끊임없는 새로운 시장창출로 매출 신장을 거듭하고 있는 신안포장산업(주)은 올해 아파트형공장 매출을 포함, 650억의 매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직원들로 하여금 벤처기업과 같은 모험심과 창의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대규모로 확대된 첨단 설비와 종합 포장시스템을 적극 활용, 저가의 고품질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매출 및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신안포장산업.

30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골판지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신안포장산업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

박초혜 기자